

-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 오직 여호와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주제: 제목:하나님의 말씀에 솔루션이 있습니다 성경:  
히브리서 4장12-16절

12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찢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13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 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14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15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16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히4:12-16)

- 하나님의 말씀에는 해답이 있다. 해결책이 있다. 힘이 있다. 길이 있다. 지혜가 있다. 시원함이 있다. 깨달음이 있다.
- 특히 영혼 깊은 곳에 있는 답답함을 제거하는 능력이 있다.
- 나는 초등학교때부터 성경을 읽기 시작.
- 중학생 때는 말씀에 단맛을 느끼기 시작.
- 고등학생 때는 진리를 깨닫기 시작. (논리적이 되고 변증적이 됨.)
- 대학생 때는 말씀이 열어주는 다양한 세계를 탐험하기 시작함.
- 요즘에는 항상 성령께서 따끈 따끈한 새로운 말씀을 계시해 주심.
- 고등학생 때부터 말씀에 매료되기 시작함. 말씀에 올인 하려고 함.
- 말씀으로 미련함이 벗겨지기 시작함.
- 오늘 말씀 이전에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한 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옴.

-그들은 왜 깨닫지 못하는가?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이다.

2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히4:2)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으로 받지 않으면 재미도 없고, 의미도 없다.

-오직 믿음으로 받을 때 말씀의 유익이 임한다.

-말씀은 살아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다.

-믿음이 있고 없고가 뭐 그리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인가?

-그렇지도 모르니 일단 믿고 보자는 것은 온전히 믿는 것이 아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인데, 내가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다.

-나에게는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지 않았다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건강하게 받아들이지 않으면 주셔도 큰 믿음이 되지 못한다.

-믿음은 선물이나 받은 사람도 적극적이어야 한다.

-믿음은 값싼 것이 아니다. 내가 소중히 여기지 않으면 아무런 유익도 없다. 다이아몬드도 내가 서랍속에 방치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

-나는 믿음이 왔을 때 적극적으로 덤벼 들었다. 뭐든지 성경에 있는 것은 적극적으로 믿었다.

-틀림없이 성경이 맞고 내가 틀리다고 믿었다.

-반드시 답이 있고 내가 아직 그 답을 찾지 못하고 있다고 믿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변증할 모든 방법들을 동원하였다.

-누군가 나로 하여금 믿게 하지 않았다. 내가 스스로 말씀에 다가 가서 믿었다. 200%

-다만 나는 진실되고 정확하기 원했다.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공부하면서 의심을 깨부수어 나갔다.

-내가 믿는 만큼 말씀에는 능력이 나타난다.

12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내가 말씀을 믿으면 말씀은 놀라운 능력을 발휘한다.

-말씀이 살아 있다는 것을 경험케 된다. 마치 내가 굳게 닫힌 화덕의 문을 여는 것과 같다.

-살아 있을 뿐만 아니라 활력이 있다. 즉 다른 것들을 살린다.

-검보다 예리하다. 수술을 상기하라. 요즘은 레이저로 수술한다. 무엇보다 예리하고 정확하기 환부를 절개한다. 이보다 더 예리하면 피 없이 수술할 수도 있게 된다.

-이처럼 말씀은 예리하여 사람의 혼과 영혼을 다치지 않게 수술한다.

-사람의 생각이 바뀌면 행동과 습관까지 바뀐다.

-그래서 함부로 말씀으로 사람의 마음을 난도질 하는 것은 삼가야 한다.

-말씀이 판단한다. 말씀이 기준이 된다. 아무리 내가 정당하다고 해도 말씀에서 아니라고 하면 아닌 것이다. 다른 사람에게는 사랑으로 자신에게는 엄격하게 말씀을 적용하라.

-다만 말씀이 무거운 짐이 되면 앓되니 영적 리더를 찾아가서 말씀이 가지는 유익을 누리라.

15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 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16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히4:12-16)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나의 모든 해답이 있다. 하나님은 우리의 진정한 의사시다.

-하나님은 다정하시고 따뜻하시고,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며 겸손한 모든자에게 친절하시다.

-모든 염려를 버리고 오직 예수의 피를 의지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주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해답을 주신다.

-그러나 교만하고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무섭다.

<찬양예배>

주제:전도      제목: Eye contact      말씀: 사도행전 16장9-15절

9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10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 이러라

11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압볼리로 가고

12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13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14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15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니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행16:9-15)

구호:전도 하자3, 하면 된다3. 전도 짹3, 전도 짹3 전도 짹3  
부천시민을 선린교회로!

감사합니다로 전도 문구 만들기.

오늘 셀 모임 중 누가 누구를 돌볼 것인지에 대해서 발표하기.

셀 대항 전도 이벤트를 위한 모금운동. 큰소리로 외치기. 징소리.  
상은 빙스 초대권. 교회에서는 10만원 지원함.

기도하러 강가에 가서 기도함.  
강가에서 염색을 위해서 온 여자들과 만남.  
강가에 앉아 모인 여자들에게 전도함.

하나님께서 두아디아에서 온 루디아의 마음을 열.  
아이컨택은 이처럼 마음을 열게 만든다. 내가 하려는 말보다 성령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에 관심하자. 겸손함과 온유함이 최고의 무기다.

전도에서 아이컨택은 소중하다.  
그 사람의 눈 높이로 다가가는 것이 소중하다.  
유대인을 얻으려면 유대인으로 다가가야 효과적이다.  
헬라인을 얻으려면 헬라인으로 다가가야 효과적이다.  
그 사람의 눈높이가 중요하다. 그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지가 중요하다.

하나님께서 거기에 답을 가지고 계신다.  
아이가 할아버지와 놀지 못하는 것이 아니다.  
아이가 버릇이 없거나, 할아버지가 고집이 세기 때문에 함께 놀지 못한다.  
아이가 친절하고 할아버지가 자애스럽다면 둘이는 잘 논다.  
한번에 한사람 만나도 큰 수확이다.  
바울도 오늘 루디아 한사람 전도했는데, 그녀가 준비되어 있었고 온 집을 전도하게 되었다.

